

함평군, 잔류농약 분석능력 '세계 최고'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평가 참가
25개 성분 중 19개 성분 0.2이하

함평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국제 분석능력숙련도평가(FAPAS)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잔류농약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가 주관하는 국제 분석능력숙련도평가(FAPAS)에서 잔류농약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공인 받았다.

세계 각 나라의 정부·대학·민간분석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제 분석능력숙련도평가는 잔류농약 등 10여 개 분야의 분석능력을 평가한다.

여기서 함평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잔류농약 분석능력 평가 기준인 Z-score 지표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0.4이하의 수치를 받았다.

특히 총 25개성분 중 19개 성분은 0.2 이하의 값을 받았다.



함평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서 잔류농약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

Z-score는FAPAS평가에 참가한 기관 간 오차범위를 산출한 것으로, 보통 ±2 수치 이내면 준수한 것으로 본다.

김동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군 분석실의 잔류농약 분석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됐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 연말까지 현재 분석 가능한 320성분을 473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0년에는 수질과 중금속에 대한 분석도 이뤄질 수 있도록 유해물질 분석 시스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함평=나성주 기자 nsj3983@

광주시, 오늘 인공지능 정책 토론회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3일 오후 4시 광주CMB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김경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인공지능기반 광주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인공지능이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산·학·연 관계자에게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먼저 광주과학기술원 임혁 사업단

장이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동향과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생태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소개, 주제발제 등을 한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첨단3지구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061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국내 최대 인공지능 집적단지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봉채영 기자

올 상반기 꽃게어획량 10~40% 증가 예상

올해 봄철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일 "꽃게의 주 생산지인 서해 인천해역의 올해 봄어기 어획량이 전년도보다 10~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꽃게 자원의 변동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강수량에 따른 영양염·수온 변동 등 환경적 요인과 꽃게

유생(幼生) 밀도·초기자원량 등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미성어나 포란한 어미의 과도한 어획·불법어업·어선세력 등의 인적요인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태어난 꽃게의 유생밀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평균 5,976개/1,000㎡로 2017년 3,209개/1,000㎡보다 86%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최인락 기자 remark@

오늘의 날씨

4월 3일 (水)
음력 : 2월 28일

수도권 날씨
12 ~ 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4/13, 동두천 -2/14, 가평 -3/13, 파주 -3/13, 서울 2/12, 양평 -3/13, 인천 3/12, 수원 2/12, 용인 2/12, 평택 -1/13, 백령도 3/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경기문화창조허브' 광명에 조성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최종 선정
3년간 도비 30억·노하우 등 전수

경기도는 광명시가 제안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신규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2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도는 재원마련 방안과 공간 확보, 지역특화 융·복합콘텐츠 발굴 적정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광명시에는 ▲3년간 도비 30억 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한 운영 지원 ▲문화콘텐츠 창업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조만간 광명시와 실무협의체를 갖고 전담팀(TFT)를 구성,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시·군의 지역특화산업을 활용한 융·복합콘텐츠 발굴과 창작·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



경기도 6번째허브조성예정지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경기도

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도가 설립한 대표적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플랫폼이다.

2014년 5월 성남시 판교에 첫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문화창조허브에서 창업 1,213건, 일자리창출 3,236개, 스타트업지원 2만3,320건, 이용자 35만1,431명, 입주·졸업 스타트업 54개사 39억 원 규모의 외부자금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안치권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광명시는 국내외 친환경 상품시장 선도를 위한 에코디자인을 특화분야로 하고 있어 업사이클과 리사이클, 친환경소재 등 유관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한 창작·창업생태계 조성 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혁신도시' 13개 공기업 취업설명회

광주시, 내일 합동설명회 개최
13개 공공기관 등 정보 제공
개별 상담·모의 면접 진행도

광주광역시시는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남도와 함께 4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2019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포함해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3개 이전 공공기관과 광주은행을 비롯한 3개 지역기업 등이 참여해 광주·전남지역 취업 준비생들에게 유익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기업은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상담 부스를 설치해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채용요강을 안내하고 취업준비생들과 일대일 취업상담을 진행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 안내, 한국전력·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입사원 채용요강 안내, 한전 KDN·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입사한 지역 선배의 취업성공 사례발표 등 본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실제 채용면접관의 모의면접과 직업심리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메이크업·코디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및 나만의 명함 만들기 등 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재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 18%를 시작으로 매년 3% 이상 확대해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1.1%로 359명이 지역인재로 채용됐으며, 이는 민선 7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목표 비율인 18%를 상회했다.

또한 올해 이전공공기관 전체 채용 규모는 2300여명으로 400여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

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협의체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상·하반기 대학생 탐방(12회, 회당 40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오픈캠퍼스 확대, 공공기관장협의회 및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공동 과제로 상정해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김광희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바란다"며 "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전남 무안군은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무안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무안사랑 상품권'을 올 하반기에 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

혔다. '무안사랑 상품권'은 무안군이 발행하고 관리까지 맡은 지역화폐이다. 군은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가맹점과 판매대행점을 모집해 오는 7월부터 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5만원권 총 4종이다. 평상시에는 3%, 명절 등 특별한일 시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품권 가맹점 모집 대상은 슈퍼마켓을 비롯한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의류 매장 등이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